

인 · 터 · 뷰 보성파워텍(주) 임도수 회장

“미래전력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다할 것”

보성파워텍은 또 다른 신기술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1991년 설립된 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청 등 유수의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산업 분야의 송배전 전력용 기자재의 중견전문 제조업체로서 향후 전력공급신뢰도 향상을 위해 고품질 자재개발이 요구되는 새로운 전력산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분야, IT를 융합한 전력기기분야, 친환경 기기개발 등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미래전력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대 내외의 제품수요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코자 철구조물 분야에서는 별도의 설계팀을 운영하여 '전력신기술 61호'와 같이 철구조물 분야에서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성파워텍의 목표는.

2008년도 당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340억 철골 공급계약 체결에 따른 품질 만족 생산입니다. 상기 계약의 납품은 금년 10월부터 정식 납품이지만 금년 초부터 모든 준비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회사는 동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금년도 매출 목표는 800억 경상이익 20억으로 현재 추세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방침은.

우선 풍력발전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지속적 수익기반 창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글로벌화 구축,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핵심 기술력 경쟁우위 확보, 성과지향적 조직구축, 인적자원 관리로 핵심역량 집중 등을 통해 '인재양성으로 핵심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 효율경영확립 및 안정적 매출 실현, 가족적인 조직문화 정착, 사업구조 고도화로 이익창출 극대화 등을 통해 '책임경영 정책과 경영의 내실화'를 다져 나갈 생각입니다.

어떠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저의 경영철학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첫째 하면 된다, 둘째 일은 스포츠다, 셋째 신리는 생명이 다, 넷째 품질에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다섯째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의 경영철학이 지금 보성파워텍의 정신적 자산입니다.

전기산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기산업계의 업·단체가 모두 힘을 합쳐서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 업·단체의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는 물론 정부에 전기산업계의 애로사항이나 비전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